

편집 및 발행인 : 최상희 원장 직무대행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총괄 : 김동환 감수 : 이연경 전화번호 : 051-797-4913 E-mail : kdong@kmi.re.kr

Contents

▶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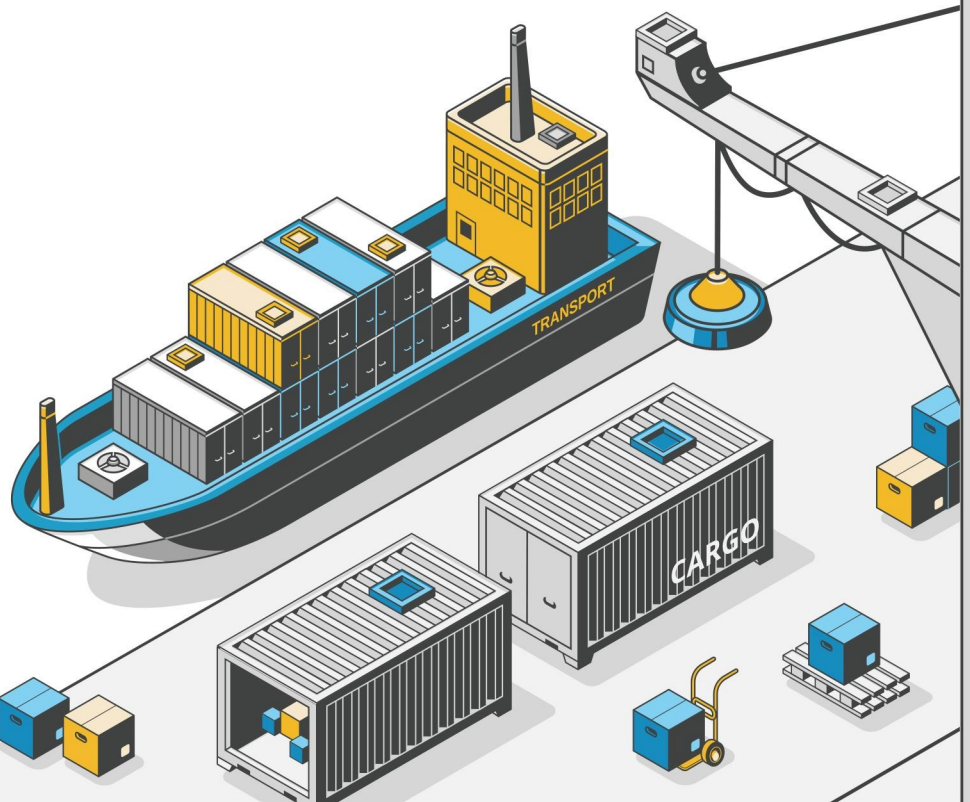
- 美, 아세안 국가에 고율 상호관세 폭탄...
제조·물류 공급망 불확실성 확산 우려
- 美 관세 정책, 말레이시아 물류산업 위협 우려

▶ 공지사항

- 『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』 모집 공고
- 『국제물류 정보포털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▶ 미주·중남미 물류시장 동향

- 관세 불확실성으로 4월 미-멕시코 화물운송 수요
급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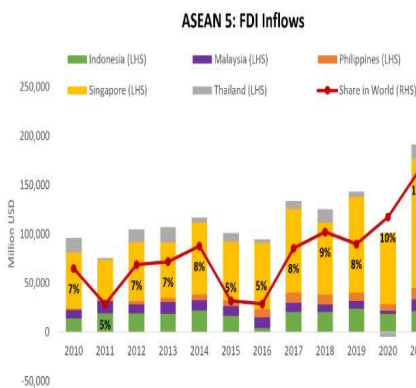


美, 아세안 국가에 고율 상호관세 폭탄... 제조·물류 공급망 불확실성 확산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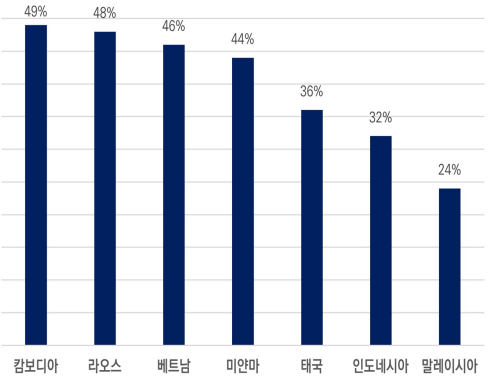
- ▶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로 아세안 지역 제조업 기반과 수출 물류 공급망 전반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
 -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0%의 기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, '25년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추가로 공개함
 - 이 중 베트남, 태국, 캄보디아 등 아세안 주요 제조국에는 각각 46%, 36%, 49%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관세가 책정되면서 수출입 물류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
 - 특히 베트남은 최근 수년간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로 주목받으며 미국향 수출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나, 이번 고율 관세 적용으로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전망됨
 - 이에 따라 글로벌 생산 및 물류 공급망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으며, 기업 또한 생산 거점 이전 등 대응 전략 모색이 불가피함

아세안 국가, 美 고율관세 변화 속 제조, 물류 체계 전환 압박

2010-2022년 아세안 지역 FDI 성장률



트럼프 2기, 아세안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율



자료: Oxford Economics, BMI(검색일: 2025.04.08.), KMI 작성

- ▶ 이에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에 기존 생산 거점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의 운영 부담 가중돼 대체 공급망 모색이 불가피한 상황임
 - 이번 상호관세 발표로 베트남 등에서 생산되는 對美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가 예상됨
 - 이에 미국 수출을 위해 운영한 생산기지의 유지 여부 및 생산거점 이전 등 기존 공급망과 관련한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임
 - 그러나 생산설비 및 인프라 이전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, 단기적인 전략 전환에는 한계가 존재함
 - 특히 의류봉제, 전자조립, 식품가공 등 아세안 주력 산업은 노동집약형 구조로 인해 대체 거점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, 공급망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

- ▶ 아세안 주요국의 對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나, 단기적인 공급망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 - 상호관세 발표 이후 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
 - 그러나 협상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단기적으로는 고율 관세 적용에 따른 수출 차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
 -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전자부품, 섬유·의류, 농식품 가공업종의 경우 납기 지연, 수요 감소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
 - 일부 기업은 브라질, 아프리카, 호주 등 대체 시장을 모색하고 있으나, 투자 비용, 현지 인허가, 운송루트 확보 등의 제약으로 단기적인 전환에는 한계가 있음

- ▶ 글로벌 흐름에 따라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세안 지역으로의 제조업 진출을 가장 활발히 진행해 왔던 우리 기업들도 다각적인 생산·물류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함
 - 트럼프 1기 이후 우리 기업 또한 글로벌 흐름에 따라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세안 지역으로의 제조업 진출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해 왔음
 - 이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만큼, 우리 기업 또한 아세안 지역 내 주요 생산품목의 미국 의존도를 점검하고 수출 대상국 다변화 전략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또한 고율 관세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해 단기적으로는 선적 시기 분산, 기존 계약의 재협상, 재고 운영 계획 조정 등을 통해 즉각적인 물류 대응 시나리오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
 - 중장기적으로는 인도, 멕시코 등 국가별 생산, 물류 포지셔닝 비교 검토를 통해 공급망 재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 - 더하여 단순한 비용 비교뿐 아니라 각국의 통관 안정성, 미국과의 통상 관계, 현지 정책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급망 전략 수립이 필요함

美 관세정책, 말레이시아 물류산업 위협 우려

- ▶ 미국의 24% 관세 부과(2025년 4월 시행)로 말레이시아 물류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

 - 말레이시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연계되어 있어, 미국 관세 부담과 미-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파급 효과에 매우 취약함
 - 미국향 말레이시아 수출품(60% 이상이 전자제품)에 대한 24% 관세 부과는 상품 가격 상승과 더불어 수출량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
 - 물류망의 중심인 항만과 공항의 물동량 감소로 인해 매출 하락과 운영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
 - 이에 따라 물류업계의 해상·항공 운송 물동량 감소, 창고 수요 하락, 육상 운송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

- ▶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말레이시아는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위치에 있어 미-중 무역 분쟁이 중국 공급망 내 말레이시아 중간재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음

 -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 시 54% 관세로 인해 수출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말레이시아산 중간재 수요도 함께 하락할 것으로 보임
 - 이는 중간재 보관 창고의 점유율 감소 및 운송 네트워크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
 - 더욱이 미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말레이시아 상품의 물류 흐름마저 감소시킴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

- ▶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출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

 - 관세 인상으로 전자 및 전기 산업의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, 인도, 멕시코 등 보다 유리한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음
 - 주요 전자 및 전기 산업의 외국 기업 철수는 물류 수요 급감, 고용 감소, 인프라 유희화로 이어질 수 있음
 - 이와 더불어 경제 압박과 자본 이탈로 인한 링깃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장비와 연료 등 물류 운영 비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음

- ▶ 미국의 '프렌드쇼어링(friend-shoring)' 정책은 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제조 및 무역에서의 역할을 축소 시키고 물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음

- ▶ 말레이시아는 단기적 위기 대응과 장기적 구조 개혁 병행을 통해 물류산업 보호 및 경제 회복력 강화가 필요함

-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말레이시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적극적 협상으로 관세 면제 확보 시도가 필요함
- EU, 인도, 중동 등 신규 시장과 무역협정을 통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물류 서비스 수요 창출이 필요함
- 링깃화 안정화를 통해 자본 이탈 방지와 물류 운영 비용 증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
- 첨단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고급 물류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
- 아세안 무역협정(ATIGA, ASEAN Treaty In Goods Agreement) 확대로 아세안 내 무역을 강화하고, BIMP-EAGA(Brunei Darussalam-Indonesia-Malaysia-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, 브루나이-인도네시아-말레이시아-필리핀 성장 지역)와의 연결성을 강화해 관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역 공급망을 강화하는 사업(농업, 관광업, 자원 기반 산업 등)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국제 무역 감소의 영향을 일부 상쇄하기 위한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국내 물류 수요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CPTPP(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-Pacific Partnership), RCEP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 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경로 다변화 및 지정학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

참고자료: www.theborneopost.com (검색일: 2025.04.07.)

관세 불확실성으로 4월 마-멕시코 화물운송 수요 급감

- ▶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선제적 재고 확보로 지난 1~3월 멕시코~미국 화물운송 물동량이 전년 대비 약 50% 증가해 사상 최고 수준 기록
 - 트럼프 美 대통령은 취임 이후 캐나다-멕시코산 수입품에 25%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지난 3월, USMCA 무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한 달간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함
 - 이에 지난 1~3월간 관세 부과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재고를 비축하려는 전략인 프론트 로딩 (Front-loading)으로 멕시코 북부~美 텍사스 국경을 거쳐, 美 전역 주요 소매업체 창고 및 유통센터까지의 화물운송이 급증함
 - 공급망 리서치업체 Motive는 북미 주요 내륙항만인 라레도(Laredo)항의 화물운송이 전년 동기 대비 48.5% 증가해 지난 3월 31일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힘
 - 이러한 추세는 캐나다~미국 화물운송 물동량과 스팟운임에도 적용돼, 북미 복합 운송기업 ITS Logistics는 지난 2~3월 토론토~시카고 물량이 50% 이상 늘어났으며 운임은 약 10% 증가했다고 밝힘

2025년 미국 월간 화물운송 예약 동향 : 권역별 전월 대비 변화율

	February	March	April
All	44%	-15%	-41%
Northeast	43%	-31%	-18%
Southeast	50%	-18%	-35%
Midwest	21%	-1%	-35%
Northwest	14%	1%	-61%
Southwest	18%	18%	-48%
West	58%	-17%	-52%

주: 항만, 창고 및 물류센터에서 트럭으로 운송한 물량
 자료: DataDocks, <https://www.cnn.com/> (검색일: 2025.04.0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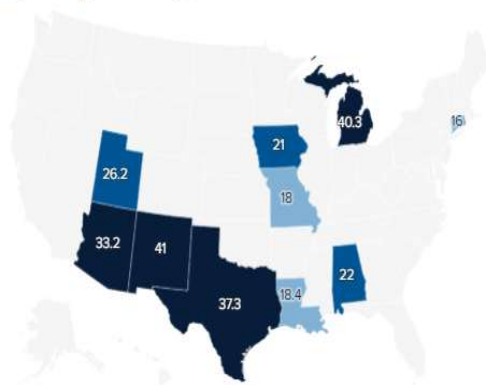
- ▶ 그러나 재고 과잉 비축과 소비자 수요 위축으로 4월 멕시코~미국 화물트럭 운송 예약이 급감했으며, 특히 북서부 주요 항만 및 물류 거점은 운송 정시성 하락 우려
 - 1~3월 기업은 이미 재고를 과잉 확보했으며, 관세 불확실성으로 소비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신규 화물 예약이 급감해 4월 멕시코~미국 트럭 운송 예약 수준은 전월 대비 41% 감소함
 - Data Docks는 예약이 가장 급격히 감소한 지역은 美 북서부(-61%)와 서부(-52%) 지역으로, 이로 인한 북서부 지역 항만과 물류 거점의 정시성이 하락할 수도 있음을 언급함

- 또한 전통적으로 트럭 운송 수요가 높은 남동부(-35%)와 남서부(-48%)의 4월 화물 예약도 급격히 줄어들었는데, 4월 2일 관세 발효 예고로 인해 기업이 수입을 최소화하면서 관망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돼, 美 전역 트럭 운송 수요는 향후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

미국 주별 멕시코 수출입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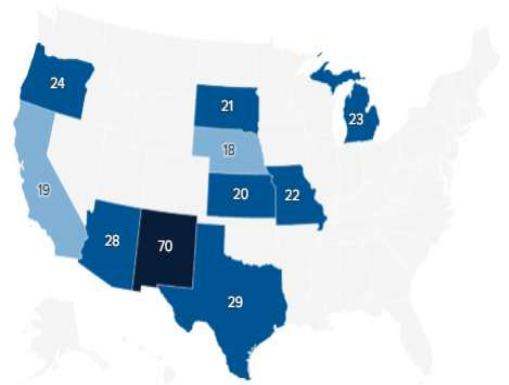
SHARE OF TOTAL IMPORTS FROM MEXICO

■ < 20% ■ 20-30% ■ 30%+



SHARE OF TOTAL EXPORTS GOING TO MEXICO

■ < 20% ■ 20-30% ■ 30%+



주: 주별 수출입 총액(USD)에서 멕시코 수출입(USD) 비중
자료: LendingTree (검색일: 2025.04.08.)

- ▶ 멕시코~미국 간 운송되는 수출입 물동량의 70% 이상은 육송으로 이뤄짐에 따라 향후 관세 불확실성으로 한동안 북미 화물운송 시장의 냉각기 지속 예상
 - 특히 멕시코 수출입 비중이 가장 높은 美 3개 주인 뉴멕시코, 텍사스, 애리조나의 경우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경 간 화물운송 비중이 높음
 - 이에 해당 지역의 우리 기업 또한 다양한 운송 경로 확보와 운송 비용 관리를 강화하며, 정확한 수요 예측과 재고 최적화를 통해 불확실성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



공지사항

『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』 모집 공고

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

2025. 4. 1(화) - 4. 30(수)

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『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』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2025년도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제출 방법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www.kmi.re.kr)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국제물류 정보포탈(withlogis.co.kr) 공지사항에서 공고문과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(hjsung@kmi.re.kr) 제출

문의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김동한 센터장
T 051-797-4913 E kdong@kmi.re.kr
성현정 전문연구원
T 051-797-4648 E hjsung@kmi.re.kr



사업 개요

1. 해운-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

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·분석 비용 지원

- ① 인수합병형(현지기업 M&A 및 지분투자)
- ② 시설투자형(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)

지원내용

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업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지원금액

조사비용의 최대 50% 지원(최대 1억원)

2. 해외시장 조사-컨설팅 지원 사업

해외물류거점 확보(현지법인 및 지사 설립), 수출입 물류공급망 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, 현지 물류시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해외진출 및 시장조사 등을 위한 직접비용(인건비, 국외출장비, 컨설팅비 등) 지원

지원금액

- ✓ **물류기업 단독 수행** 조사비용의 최대 50% 지원(최대 3천만원)
- ✓ **하주-물류기업 컨소시엄** 조사비용의 최대 50% 지원(최대 4천만원)

KMI International Logistics Weekl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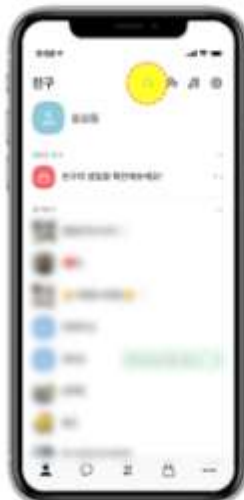
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



2. '국제물류 정보포탈' 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